

제약사 CEO “내실 탄탄하게… 글로벌 도약” 한목소리

-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내실경영 통해 글로벌 한미로”
- 이경하 JW그룹 회장**
“경쟁우위서 사회적 가치 창출”
-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AI 신약연구로 개발 역량 강화”
-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
“인재 육성·포트폴리오 확대를”



한미약품 그룹 임성기 회장이 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영업사원 교육장을 방문하여 내실경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웅제약 전승호 사장이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책임 경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자”고 당부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들이 2019년 첫날 현장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2019년 내실경영, 책임경영을 통해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2일 한미약품 그룹 임성기 회장은 첫 공식일정으로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영업사원 교육장에 참석해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 내실경영’을 새해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그는 “혁신 DNA를 다시 일깨워, 효율과 실질로 꽉 채운 한미약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한미의 입구에 다가서 있는 지금, 그 동안 성취한 혁신 성과들을 다시 돌아보며 내실 경영으로 완성시켜 나가자”고 독려했다.

영업 부문에서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들을 통한 내실경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R&D 부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과제들의 성과 기반 연구를 주문했다. 임 회장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실경영’을 쌓아 그룹 전체의 내실을 기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글로벌 한미 비전의 실현이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독려했다.

JW그룹 이경하 회장은 ‘스마트JW: 경쟁우위 성과’를 경영방침으로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단순화 ▲실행 ▲공유 가치 창출을 내세웠다. 지속적 성과를 넘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다.

이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면 경쟁우위 성과는 이뤄질 수 없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전략과 계획을 실행한다면 JW의 시장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대웅제약은 2019년 키워드로 ‘책임 경영’을 내세웠다.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우리 일은 자신과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위한 일까지 연결되어 있다”며,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자주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나라와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톨리눔 독신 ‘나보타’의 선진국 의약품 시장 진출은 기업 가치 상승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AI를 활용한 신약연구

로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책임경영 체제 정착에 힘써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원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2019년 수익중심 경영 강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Global 제조 경쟁력 확보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올해 보령제약은 표적항암제인 동시에 면역항암신약으로 그 혁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BR2002 프로젝트의 한국·미국 동시 임상 1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자회사인 바이젠텔에서 진행 중인 림프종 면역세포치료제 임상 2상과 두번째 파이프라인인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진입을 준비하는 등 미래성장 동력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보령제약 안재현 대표는 “보령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재확보와 육성 그리고 사업포트폴리오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재확보와 육성, 제약산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램시마SC, 글로벌 특허... 2037년까지 독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임상 데이터로 후속특허 출원도 준비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피하주사 제제 ‘램시마SC(CT-P13SC)’ 제품 보호를 위한 글로벌 특허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총

90여개국에서 램시마SC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 했으며, 오는 2037년까지 특허 권으로서 보호받게 된다.

셀트리온이 출원한 특허는 램시마SC 뿐 아니라, 램시마 성분인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ubcutaneous)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벽 특허다. 셀트리온은 이번 특허 출원으로, 오는 2037년 특허 만료일까지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시장을 독점할 전망이다.

TNF-α 억제제 가운데 램시마SC와 동일한 피하주사 제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휴미라는 미국에서다수의 특허로 바이오시밀러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램시마SC가 미국에 출시 되면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분야에서는 유일한 TNF-α 억제제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단독 경쟁도 가능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로 향후 레미케이드 뿐만 아니라 휴미라, 엔브렐 등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36종원이 넘는 TNF-α 억제제 시장까지 모두 침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하주사 제제인 휴미라와 엔브렐의 특허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2023년, 2029년 이전에 미국 출시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오리지널의약품과 미국에서 경쟁할 수 있는 TNF-α 억제제 의약품은 램시마SC가 유일하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가 이들 바이오시

밀러 출시 전 미국에 진입한다면 휴미라·엔브렐 투여 환자도 램시마SC의 잠재적인 수요층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의 시장 독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램시마SC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특허 출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SC는 기존에 없었던 제품인 만큼 투여방식과 투여량, 제형 등에 대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투여방식 변경 및 성능 개선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램시마SC가 전세계 매출 1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를 넘어설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새해부터 법조계는 선거열기로 뜨겁다. 이달 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23일)과 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28일) 투표가 모두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변회의 경우, 전국 변호사의 약 75%를 회원으로 둔 최대 규모 지회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서울변회가 움직이면 법조계의 시선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메트로에는 인권보호와 지역수호 사명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의 출마 일정을 들여봤다. (편집자주)

서울변회 회장 후보등록 기간(3일~7일)에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박종우(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침탈된 지역수호와 공익활동의 의무부담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일 “지난 4년간 감사로서 매주 상임이사에 참석했다”며 “사전 학습 기간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상임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된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변회 출마 동기는.
“2015년 1월 93대 감사에 당선되었을 당시, 회장 출마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3분기 감사결과, 경유회비수입(소송위임장에 부착하는 경유증표 판

“변호사 공유영역 수호 총력... 일자리 창출도”

서울변회 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박종우 변호사

매수입)이 서울변회 110여년 역사상 최초로 줄었다. 변호사는 급증하는데 사건 총수는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변호사 업계 불황의 증거가 이제 산술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서울변회 회원들은 서울회 회칙 회규상 부당한 부담을 강요 받고, 유사지역들의 집요한 지역침탈 시도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나는 서울변회 회장 후보군 가운데 유일한 40대 후보로, 위 아래를 아우르는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당선된다면 최우선 과제를 어디에 둘 건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회칙회규상 부당하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삭제·개정하겠다. 공익활동시간 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시간당 3만원씩 법률원조지원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공익활동미이행부담금 제도, 공익활동 보고의무, 회장 감사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 부

당하게 회원들의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광고규정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수호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사시존치 논쟁 등으로 우리끼리 싸우는 동안, 변리사·세무사·행정사·노무사 등 유사지역이 변호사 지역 침탈을 시작했다. 지역 수호를 위해 언론·국회와 가까워져야 한다. 서울변회 산하 대외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기차·국회보좌진 출신 변호사들로 전면 개편하겠다. 집행부에도 제2총무이사를 신설해 대외협력업무를 전담시키겠다.

또한 ‘사무장법’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예외 없는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셋째는 일자리 창출이다. 서울변회장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모두 만나야 한다. 지자체가 원하는 점을 파악해 사회공헌사업을 돕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시도하겠다. 법치행정이라는 명분이 있다.”

-변호사법상 공익의무에 대한 견해는.
“현행 서울변회 회칙과 규정상 공익활동 보고의무와 공익활동 미이행 부담금은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법조 경력 2년 미만인 개인회원에게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되지만, 업계가 불황이므로 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변호사법의 이상과 달리, 일률적인 공익활동의무 부과는 어려운 변호사 업계 현실을 볼 때 문제가 있다.

내가 당선되면, 서울변회가 프로보노 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는 서울변회가 위임받아 이행하는 식으로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를 지키겠다. 프로보노 지원센터와 공익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유지·강화하겠다.

다만, 변호사법상 공익활동의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역수호나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유사지역과 달리 변호사에 게만 공익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이 의무를 포기할 경우, 국민에게 변호사 직역을 수호해 달라거나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만이 공익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공익을 위한 소송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본다.”

-지역 수호와 관련, 법률구조공단에 문 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종우 후보 프로필

- ▲서울영동고등학교
- ▲서울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33기
- ▲공익법무관(서울고검)
- ▲법무법인 준경 구성원 변호사

“두 가지다. 우선, 변호사 자격 없는 일반직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한 구조대상자의 범위가 전국민의 40%를 상회할 정도로 넓다. 이는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연결된다. 정말로 법률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적시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법준 기자 joker@